

2018년 11월 2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소매유통, 에너지업종이 하락 주도 국제유가 장중 7% 넘게 급락 한 점도 부담

미 증시 하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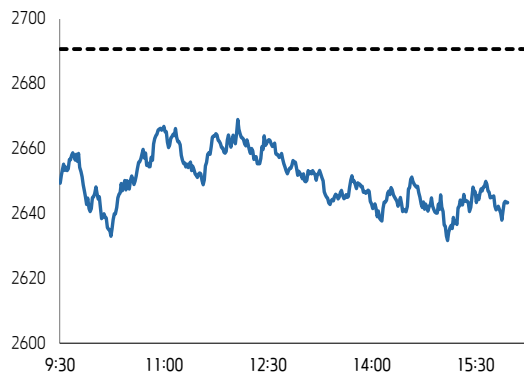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소매유통업체들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여파로 하락 출발. 더불어 애플(-4.78%)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조정,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폭 확대. 한편,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관련 발언 이후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한 점도 부담(다우 -2.21%, 나스닥 -1.70%, S&P500 -1.82%, 러셀 2000 -1.84%)

미 증시는 ①소매유통업체 하락 ②국제유가 급락 ③애플 하락 등으로 부진. 장 시작 전 L 브랜드(-17.71%)는 양호한 실적발표에도 불구하고 배당 축소를 발표하자 급락. 타겟(-10.52%)도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이 부진(yoy +5.1%) 하다고 발표하자 하락. 그 외 TJX(-4.37%), Kohi's(-9.23%) 등 백화점 체인점 또한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이익 피크 논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금리 상승 등이 소매 유통업체 실적 부진을 야기 시킨 것으로 추정

국제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언급한 이후 7% 넘게 급락한 점도 투자심리 위축.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대해 "이란과의 중요한 싸움에서 위대한 동맹국이며, 확고부동한 파트너다" 라고 주장. 더불어 "사우디는 합리적인 유가 수준을 위한 나의 노력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라고 언급. 12 월 6 일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사우디와 UAE 등이 감산의지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우디가 감산에 동의할지 불확실해지자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한 것으로 추정

이 외에 애플(-4.78%)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가격 책정 실수로 아이폰 XR 판매 급감과 중국 수요 감소, 달러 강세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209 달러→182 달러) 하자 하락. 한편, 미 정부의 핵심기술 수출 제한 가능성을 높이는 보고서가 중국의 '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부담. 다만,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무역분쟁 관련 자세한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점과 카니 BOE 총재가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 한 점은 긍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2.58	-0.86	홍콩항셱	25,840.34	-2.02
KOSDAQ	690.81	-1.61	영국	6,947.92	-0.76
DOW	24,465.64	-2.21	독일	11,066.41	-1.58
NASDAQ	6,908.82	-1.70	프랑스	4,924.89	-1.21
S&P 500	2,641.68	-1.82	스페인	8,866.50	-1.55
상하이종합	2,645.85	-2.13	그리스	593.05	-3.91
일본	21,583.12	-1.09	이탈리아	18,471.38	-1.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 유통업체 급락

L브랜드(-17.71%)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타겟(-10.52%)은 동일점포 매출이 예상치(yoy +5.5%)를 하회한 5.1%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하여 여파로 하락했다. 백화점 체인점인 TJX(-4.37%)와 Kohl's(-9.23%)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했다. 갭(-3.07%), 월마트(-2.71%), 코스트코(-4.12%) 등도 동반 하락했다. 엑손모빌(-2.84%), 세브론(-2.78%), 코노코필립스(-3.69%)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애플(-4.78%)은 골드만삭스가 이번달 들어 3번째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했다. 큐로브(-1.79%), 스카이웍(-1.91%)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베스트바이(+2.14%)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마존(-1.11%)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한편 알파벳(+0.29%), 페이스북(+0.67%) 등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에 성공했다. 아나로그디바이스(+4.09%)는 견조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NVIDIA(+3.03%)는 배당금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AMAT(+3.92%)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4.83%	대형 가치주 ETF	-2.07%
에너지섹터 ETF	-4.64%	중형 가치주 ETF	-1.54%
소매업체 ETF	-3.38%	소형 가치주 ETF	-1.93%
금융섹터 ETF	-2.20%	배당주 ETF	-1.53%
기술섹터 ETF	-2.15%	변동성 ETF	+5.58%
소셜 미디어업체 ETF	-1.59%	대형 성장주 ETF	-1.63%
인터넷업체 ETF	-1.03%	중형 성장주 ETF	-1.45%
리츠업체 ETF	-1.31%	소형 성장주 ETF	-1.83%
주택건설업체 ETF	-0.38%	신중국 고배당 ETF	-2.05%
바이오섹터 ETF	-0.60%	신중국 저변동성 ETF	-1.39%
헬스케어 ETF	-1.00%	하이일드 ETF	-0.46%
곡물 ETF	-0.58%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0.14%	Long/short ETF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8.27	-3.29%	-0.99%	-6.25%
소재	333.99	-1.86%	-1.12%	+2.44%
산업재	581.76	-2.10%	-2.84%	-3.54%
경기소비재	797.62	-2.18%	-6.23%	-6.34%
필수소비재	563.23	-1.69%	-2.61%	+0.54%
헬스케어	1,039.80	-0.97%	-1.22%	-0.46%
금융	434.19	-2.09%	-1.98%	+1.02%
IT	1,124.02	-2.14%	-4.88%	-8.88%
커뮤니케이션	142.33	-1.26%	-3.16%	-7.43%
유틸리티	277.09	-0.51%	-0.60%	+1.25%
부동산	204.26	-1.35%	-0.51%	+4.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80% MSCI 신흥 지수는 2.1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97 계약) 여파로 3.05pt 하락한 266.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소매유통업체 실적 둔화 및 애플 하락,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증시 하락 요인 대부분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되었거나 미국 내 이슈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옹호하자 OPEC 정례회담에서의 감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여파로 급락 했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UAE 등이 감산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지속된 급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된다.

한편, 미-중간 무역분쟁과 관련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매우 자세한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커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타결을 원하고 있다” 라고 주장 했다. 더불어 브렉시트 관련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점도 우호적이다. 영국 BOE 카니 총재는 28일 ‘노딜 브렉시트 영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번 협상안에서 전환기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기간 또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며 협상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 했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 변화 요인들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신흥시장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반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견조한 미국 주택지표

미국 신규 착공 건수는 전월(121 만건) 보다 증가한 122.8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예상치(124 만건) 보다는 감소했다. 한편, 허가 건수는 전월(127 만건) 보다 소폭 감소한 126.3 만 건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126 만건)은 상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살해에 대해 사우디 정부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응을 하기 위해 사우디는 변함없는 동반자로 남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2 월 6 일 있을 OPEC 정례회담에서 사우디가 감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폭은 더욱 확대 되었다. 다만, UAE 는 여전히 감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12 월 6 일에 감산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언급 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전일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경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금리가 너무 낮다” 라고 주장 한 여파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는 여전히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카니 BOE 총재가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 했으나, 스코틀랜드 수반이 협상안 반대를 표명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하락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국제유가 급락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높인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단기물은 견조한 주택지표 결과 및 전일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12 월 FOMC 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금을 비롯한 구리와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43	-6.59	-4.32	Dollar Index	96.832	+0.66	-0.48
브렌트유	62.53	-6.38	-4.49	EUR/USD	1.137	-0.73	+0.71
금	1,221.20	-0.33	+1.65	USD/JPY	112.71	+0.14	-0.97
은	14,269	-0.93	+2.09	GBP/USD	1.2787	-0.52	-1.46
알루미늄	1,940.00	+0.31	+0.23	USD/CHF	0.9952	+0.17	-1.17
전기동	6,184.00	-1.20	+1.83	AUD/USD	0.722	-1.01	+0.03
아연	2,551.00	-1.88	+2.49	USD/CAD	1.3308	+1.04	+0.53
옥수수	372.25	-0.27	-1.46	USD/BRL	3.7571	-0.09	-0.22
밀	508.50	+0.39	-1.79	USD/CNH	6.9441	+0.15	-0.04
대두	881.00	+0.83	+0.31	USD/KRW	1125.80	-0.25	-0.66
커피	114.90	-1.50	+1.91	USD/KRW NDF 1M	1129.47	+0.40	-0.1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056	-0.73	-8.42	스페인	1.645	-0.30	+4.20
한국	2.205	+0.80	-0.20	포르투갈	1.980	-0.20	+3.60
일본	0.102	+0.50	-1.20	그리스	4.665	+11.80	+23.70
독일	0.350	-2.30	-5.90	이탈리아	3.614	+1.90	+17.10